

원래 우리 인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적 인지능력이 인지할 수 있는 만큼만 세상을 직접 인지하였다.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인지능력이 조금씩 확장되고 새로운 인지도구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세상을 더 많이 인지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호와 같은 상징을 통해서도 세상을 간접적으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이 알게된 세상을 토대로 인지능력과 인지도구가 다시 더 확장되고 개선되는 과정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간이 세상을 이해해 왔던 과정의 역사는 인간이 사용하는 인지능력과 인지도구가 본래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졌던 인지능력과 도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세계상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확장된 인지능력과 인지도구를 토대로 구축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상징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도구의 중심에는 “디지털 기술”이 자리잡고 있다. 아날로그 방식에 의해 세상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형태는 원래의 세상을 상당부분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이므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세상을 만나게 해준다. 그러나 디지털 방식은 최소한의 사실적 만남마저 포기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상징적으로 재현된 세상을 매우 손쉽게 다른 형태로 변조하고 다른 기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속성을 통해 원래의 세상을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점점 더 빨리 디지털 방식으로 재현시켜 가고 있으며, 우리 인간과 세상과의 만남을 점점 더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아날로그식 LP가 CD-ROM으로 대체되고 아날로그 사진기가 디지털 사진기로 대체되는 속도를 보면 세상의 디지털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과 세상과의 만남이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만남으로 축소되는 현상이 더 확산된다면, 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공간과 시간을 건너 어떤 것을 재현하는 기호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것보다 더 포괄적인 것이라면, 다시 말해 커뮤니케이션이 인간 사이의 단순한 거리를 극복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디지털화 현상의 임페리얼리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매우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세상의 확산 현상에 따라 원래의 실제적 세상이 서서히 변조되고, 그래서 변조된 산술적, 이차적 세상을 실제 세상인양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 기술에 의해 커뮤니케이션 상대자들의 기술적 만남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지만 인간적인 만남이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만남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인간들의 접촉이 시스템간의 접촉으로 대체되는 이차적 형태의 인간관계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수와 학생과의 면담이 어떠해야 하며, 전자 면담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디지털 기술이 가지는 긍정적 가능성 그 자체는 매우 대단한 것이며 훌륭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기술이 실제적 세상을 왜곡시키는 속성을 수반하면서 사람과 세상, 사람과 사람간의 자연적 관계 형성을 반강제적으로 이차화 시킬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병원균이 병을 유발시킨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를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므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이 사실 때문에 모두가 병원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강제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